

청소년들의 과학 기피증이 심각하다. 고교에서 이과(理科) 기피풍조가 번져가고 있는 데다 대입 수능에서 자연계 지원자가 격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대입 수능자 가운데 자연계 지망자는 26.9%(19만9천명)로 1998년의 42.4%(37만5천명)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육계는 고교생의 이과 기피현상의 원인을 수능시험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과나 예·체능계로 응시하고도 대학은 이과로 바뀌 지원할 수 있게 한 현행 '교차지원' 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다 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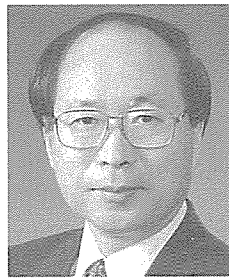
적인 원인은 과학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청소년들은 과학을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으로서 과학 기술 분야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가 청소년들의 눈에 3D 직종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력에서 판가름나고 과학기술력은 우수 과학두뇌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장래가 우수 과학기술 두뇌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과학 기피증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과학교육 내실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를 출범시켰다.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운영 정상화와 국가 과학교육 선도 △이공계 대학 입시제도 개선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에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제고 등 과학 대중화대책이 포함된 '청소년 과학교육 내실화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과학두뇌 양성과 활용



李光榮
(전북대 자연대 초빙교수)

과학교육발전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이공계 전공 이수에 적합한 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방법 확대 등 대학별 학생 전형방법 도출에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진출 유도를 위해 '대통령과학장학생'과 '우수과학교사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내실화 하여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창의력 개발에 나서며 과학고등학교의 영재 양성체제를 보완하여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교육을 선도하고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비와 장

학금 지원을 확대, 내실있는 교육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의 과학 생활화와 과학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탐구력을 길러주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지난해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영재교육진흥법』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 부산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와 '교육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 감소와 과학기술직 기피현상은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잘 사는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공계 인력의 대부분을 못 사는 나라들로부터 얻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도 과학기술 두뇌 양성과 활용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국내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값싼 해외 고급 과학두뇌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해외 과학두뇌에 영주권을 허용하는 과감하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⑤7